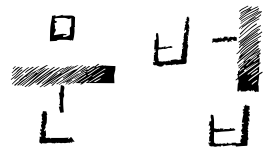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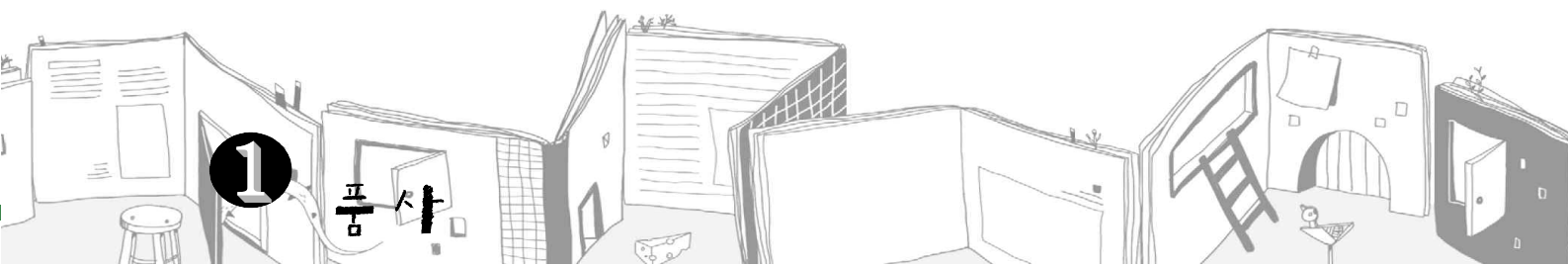


① 품사

내 인생의



NOTE



🎧 품사 한 눈에 보기

체언	명사	범위		지립성		지시대상		동작성		감정유무	
		보통	고유	자립	의존	구체	추상	동작성	상태성	유정	무정
	사람, 동물	김규환	설악산	것, 데, 줄...	바위, 열매	개념, 평화	입학, 제거	성실, 곤란	개, 닭	하늘, 꽃	
	대명사	인칭				제귀		지시			
	나, 너, 우리, 너, 자네, 그대, 그, 그분, 이분, 그이				저(=자기), 당신(=그분)		이(이것), 그(그것), 저(저것), 여기, 거기, 저기				
수사	양수사				시수사				인수사		
	한, 두, 세, 하나, 둘, 셋, 일, 이, 삼, 한둘, 서넛				첫째, 둘째, 셋째, 제일, 제이, 제삼, 한두께				둘이서, 셋이서		
관계언	조사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주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	서술격	접속	도, 까지, 마저, 조차, 밖에, 부터, 같이	
		이, 가, 께서	을 / 를	이 / 가	의	에, 에게, -로	-아, -여	이다	와 / 과		
용언 & 보조용언	동사	지동사				티동사					
		움직임이 주체에만 미침 - 자다, 뛰다, 걸다, 흐르다				움직임이 목적어에 미침 - 잡다, 누르다, 먹다, 놓다, 뜯다					
	상상 형용사				지시 형용사						
	감각	비교	존재표현	부정표현	평가표현	거리에 따라		미지	부정		
	희다, 차다	같다, 낫다	있다, 없다	아니다	착하다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어떻다	아무렇다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1. 혼자 쓰이지 못하고 본용언 뒤에 붙어 의미를 더하여 줌 2.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못 끼임										
수식언	관형사	상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새, 현, 첫, 옛, 오른, 왼, 참, 거짓, 신(新), 초(超)				이런, 그런, 저런, 무슨, 어느, 딴			한, 두, 세(서/석), 네(너/넉), 다섯		
	상분부사										
	부사	상태	정도	한정	체언수식	의성	의태	지시	부정		
		빨리, 많이	매우, 아주	잘, 가장	겨우, 바로	철썩철썩	살랑살랑	이리, 그리	안(아니), 못		
		문장부사									
단정		의혹		희망		접속					
과연, 정말, 물론, 실로		설마, 아마, 만일, 아무리		제발, 부디, 모쪼록		또는, 혹은, 및, 그러나, 그러므로, 오히려, 또					
독립언	감탄사	감정				의지				입버릇	
		아, 오, 아아, 아빨사, 어즈버				아서라, 천만에, 예, 암, 오냐, 그래, 옳소, 아니오				머, 예, 어, 거시기	

1. 체언 : 명사, 대명사, 수사

체 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장의 몸, 주체가 되는 자리에 나타나는 단어. 이들 단어류는 목적어나 서술어로 나타나는 일도 없지 않으나, 뚜렷한 기능이 주어적인 쓰임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러한 이름이 사용되어 왔다. 문장에서 주로 주어가 되는 자리에 오며, 때로는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 등으로 기능할 수 있다. 		
명사 :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	대명사 :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는 말.	수사 :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 범위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 명사 : 세종, 인천 보통 명사 : 나무, 꽃 자립 여부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 명사 : 하늘, 이름 의존 명사 : 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시 대명사 : 이것, 거기, 무엇, 어디 인칭 대명사 : 나, 너, 그, 누구, 아무, 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수사 : 이, 오, 다섯 서수사 : 첫째, 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형태의 변화가 없다. 뒤에 조사를 취할 수도 있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수사와 대명사는 명사에 비하여 관형어의 수식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다. 유사한 기능에 근거하여 체언으로 한데 묶이지만, 각각 상이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뉜다. 		



품사

(1) 명사 - 체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부류.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이라는 점에서 다른 체언과 구별됨.

①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

- 고유 명사 :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
↳ 대표적으로 인명, 지역명, 상호명 등이 이에 속한다.
- 보통 명사 :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이름.

나는 "**바둑아**"하고 우리 집 **개**를 불렀다.

✓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의 차이

- * 고유 명사에는 복수에 대한 표현이 어렵다. [예] *영자들이 마구 몰려 왔다.
- * 고유 명사는 ‘이’, ‘모든’, ‘새’ 따위의 관형사와 결합하기 어렵다.
[예] *이 영자가 저 영자를 때렸다.
- * 고유 명사는 수(數)와 관련된 말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두 백제가, *설악산마다
- * 고유 명사가 복수형을 취하면 보통 명사가 되기도 한다.
[예] *우리는 장래의 세종대왕들을 기다린다.

②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

- 의존명사 : 반드시 그 앞에 꾸며 주는 말, 즉 관형어가 있어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는 명사.
관형어 →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을 꾸밈

너는 본 **대로** 느낀 **대로** 말할 용기가 있느냐?
사과 두 **개**, 구두 한 **켤레**, 선생님 열 **분**, 백 **원**, 오 **킬로그램**

- ✓ ‘-대로, 만큼, 뿐’ ; 관형어와 결합하면 의존명사, 체언에 직접 연결되면 조사
의존명사(띄어 씀) - 바람 **부는 대로**, 할 **만큼**, 먹었을 **뿐**
조사(붙여 씀) - 자기 **나름대로**, **너만큼**, **사람뿐** 아니라
- ✓ ‘-것’ 은 모든 환경에 두루 쓰이나, ‘지’ 는 ‘-(으)ㄴ’ 에 국한되고, ‘대로’ 는 ‘-(으)ㄴ, -는, -(으)ㄹ, -던’ 에 붙는다.
-(으)ㄴ 지(의존명사, 띄어 씀) - 이 곳에 **온 지도** 2년이 되었다.
-ㄹ지(어미, 붙여 씀) -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 자립명사 : 일반적으로 혼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

③ 명사와 조사의 관계

‘주다’ 앞에 쓰이는 조사의 경우, 그 대상이 유정명사이면 ‘에게’, 무정명사이면 ‘에’가 쓰인다.

사과를 영수**에게** 주었다. / 사과를 그 집**에** 주었다.

(2) **대명사** -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 체언. 곧 명사를 대신하는 말.

① 지시 대명사 :

- ┌ 사물을 가리키는 것 - 이것, 그것, 저것, 무엇 등
- └ 처소를 가리키는 것 - 여기, 거기, 저기, 어디 등

② 인칭 대명사 : 1인칭, 2인칭, 3인칭,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으로 나뉨.

1인칭	나, 저 ¹ , 우리, 저희 ¹ , 소인, 짐(朕)
2인칭	너, 자네, 그대, 당신 ¹ , 너희, 여러분
3인칭	그, 이분, 그분, 저분, 이이, 그이, 저이
미지칭	누구
부정칭	아무
재귀칭	저 ² , 저희 ² , 자기, 당신 ²

- ┌ 미지칭 : ‘누구’-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묻는 인칭 대명사. 주로 의문문에 쓰임.
- ┌ 부정칭 : ‘아무’- 특정 인물을 가리키지 않는 인칭 대명사.
- ┌ 재귀칭 : 앞에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쓰이는 인칭 대명사. 달리 재귀 대명사라고도 함.

* 국어에서 재귀 대명사는 (다음과 같이) 대개 3인칭 주어로 쓰인 명사나 명사구를 다시 가리키는 데에 쓰인다.

철수는 아직 어린애라서 저²(=자기)만 안다니까.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²(=자기들)밖에 몰라요.
 돌아가신 아버님은 소나무를 좋아하셨어. 저 소나무도 당신²께서 심으셨지.

(3) **수사** -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부류의 단어들. 조사가 결합하므로 명사나 대명사와 같이 체언에 속한다.

- ① 양수사 : 수량을 나타냄. (둘, 셋, 다섯, 이, 삼, 오)
- ② 서수사 : 순서를 나타냄. (첫째, 둘째, 제일, 제이)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
 이(二)에 삼(三)을 더하면 오(五)이다.
 우리의 이념은 첫째는 진리이고 둘째는 정의이다.
 우리의 이념은 제일(第一)은 진리이고 제이(第二)는 정의이다.



품사

출제 Point

.....

품사 **개념 2 관계언**

2. 관계언 : 조사 -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의존 형태소, 조사는 대개 체언 뒤에 붙지만, 조사는 동사, 형용사나 부사 뒤에 붙기도 하고 문장 뒤에 붙기도 한다.

이 옷을 한번 입어만 보아라. - 체언 뒤에 붙은 경우
 꽃이 예쁘게도 피었구나. - 형용사(문장 성분상은 부사어) 뒤에 붙은 경우
 그저 빨리만 오너라. 빨리요? - 부사 뒤에 붙은 경우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 문장 뒤에 붙은 경우

(1) 격조사 -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여 주는 조사

- ① 주격조사 - ‘이/가’(음운론적 이형태), ‘께서’(선행 체언이 높임 대상 일 때), ‘에서’(선행 체언이 단체일 때)
- ② 목적격 조사 - ‘을/를’
- ③ 관형격 조사 - ‘의’
- ④ 부사격 조사 - ‘에, 에서, 에게, (으)로’ (부사격 조사 설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동일 형태 조사가 여러 기능을 하거나, 여러 형태 조사가 단일 기능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부사격 조사가 본질적으로 서술어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⑤ 보격 조사 - ‘이/가’
- ⑥ 호격 조사 - ‘야, 아, 이어’
- ⑦ 서술격 조사 - ‘이다’ (마치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한다.)

동생이 방에서 언니의 책을 읽고 있다.					
동생 + 이	방 + 에서	언니 + 의	책 + 을	읽고	있다
주어	부사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이 : 주격조사	에서 : 부사격조사	의 : 관형격조사	을 : 목적격조사		

물이 얼음이 된다.		
물 + 이	얼음 + 이	된다
주어	보어	서술어
이 : 주격조사	이 : 보격조사	

철수야, 오늘이 바로 한글날이니?			
철수 + 야	오늘 + 이	바로	한글날 + 이니
특립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야 : 호격 조사	이 : 주격 조사		이니 : 서술격 조사



품사

(2) **접속조사** -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와/과' (문어에서 잘 쓰임), '랑, 하고' (구어에서 잘 쓰임)

봄이 되면 개나리<와, 랑, 하고> 진달래가 가장 먼저 핀다.
☞ '와', '랑', '하고'는 '개나리'와 '진달래'를 이어 주기 때문에 접속 조사이다.

(3) **보조사** - 앞 말에 특별한 뜻을 더하여 주는 조사, 보조사는 크게 문장 성분 뒤에 오는 성분 보조사와 문장 끝에 붙는 종결 보조사, 그리고 문장 성분에도 붙고 문장 끝에도 붙는 통용 보조사가 있다.

① 성분 보조사 : '만, 는, 도'와 같이 문장 성분에 붙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주어에도 붙고 부사어에도 붙고 용언에도 붙어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 └ 우리만 극장에 가서 미안하다. - 한정
- └ 빨리만 가라 - 한정
- └ 이곳에서는 수영을 하면 안 됩니다. - 대조
- └ 그 집이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 역시

② 종결 보조사 : '마는, 그러, 그래' 같은 보조사로, 이들은 문장 맨 끝에 와서는 '감탄'의 의미를 덧붙인다.

그가 갔다마는. 그가 갔네그러. 그가 갔구먼그래.

③ 통용 보조사 : '요'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며 어절이나 문장의 끝에 결합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 └ 오늘은요, 학교에서 재미있는 노래를 배웠어요.

소설만 읽지 말고 시도 읽어라.
└ '만'은 앞말에 '한정'의 뜻을, '도'는 '역시'의 뜻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은'은 대조의 뜻을 더하여 준다.
오늘은요, 학교에서 재미있는 노래를 배웠어요.
└ '요'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며 어절이나 문장의 끝에 결합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 보조사 '은/는'

○ 보조사 '은/는'의 의미

- 문두(文頭)의 주어 자리에 쓰여 주어가 문장에서 설명 내지 언급되는 대상이 되는 부분, 곧 문장의 화제를 표시한다.
-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 보조사 '은/는'의 품사

☞ '은/는'은 주어 표지나 목적어 표지의 구실을 한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주어 표지나 목적어 표지를 대치한다. 이유는 동일 형태 '은/는'이 주어 표지와 목적어 표지의 구실을 겸할 수 없으며,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에서처럼 부사어 따위에도 첨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는'은 격조사가 아닌 보조사이다.

✓ 조사의 제약

- 불굴(不屈)의 의지 / 불굴의(0), 놀라운 불굴(x), 불굴이(x), 불굴을(x), 불굴에(x)
- 사고를 미연(未然)에 방지한다. / 미연에(0), 그 미연(x), 미연이(x), 미연을(x), 미연의(x)

☞ ‘불굴의 의지’의 ‘불굴’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의 ‘미연’은 예문에서 보듯이, **‘불굴의’와 ‘미연에’라는 표현으로만 사용된다.** ‘불굴’과 ‘미연’은 그 외의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없다.

이상의 예들은 자립 명사가 조사와 결합할 때 제약을 받는 경우인데, 이러한 현상은 한자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에’가 일종의 관용구를 구성하여 그 쓰임이 특이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의 ‘에’는 선행하는 명사(특히 의존 명사)와 거의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쓰임이 굳어져 있다.



품사

출제 Point



3. 용언 : 동사, 형용사 -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말을 용언이라고 한다.

-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체언을 서술하는 기능을 하므로 용언이라고 부른다.
 - 용언의 활용은 국어의 매우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이다.
- 체언이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 조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듯이, 용언도 문법적 기능을 여러 가지로 표시하려면 그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1) 용언 : 동사, 형용사

① 동사 - 주어의 동작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

- 자동사 : 움직임이 그 주어에만 관련되는 동사 - 뛰다, 가다, 놀다, 살다
- 타동사 : 움직임이 다른 대상, 즉 목적어에 미치는 동사
 - 잡다, 누르다, 건지다, 태우다

② 형용사 -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

- 성상 형용사 :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 ↳ 고요하다, 달다, 예쁘다, 향기롭다
- 지시 형용사 : 지시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지시 형용사는 성상 형용사에 앞서는 순서상의 특징을 가진다)
 - ↳ 이러하다(이렇다), 그러하다(그렇다), 저러하다(저렇다), 아무러하다(아무렇다), 어떠하다(어떻다)
 - ↳ 그렇게 예쁜 꽃은 처음 본다.

③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기준

○ 기본형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이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이다.

- 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유정 명사의 동작)
- ② 피가 솟는다. (무정 명사의 과정)
- ③ 과일은 대부분 맛이 달다. (성질)
- ④ 꽃이 매우 아름답다./*아름답는다. (상태)



품사

○ 기본형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이다. (‘본, 솟은’에 쓰인 ‘-(으)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전성어미로서 형용사에 쓰이는 ‘-(으)ㄴ’과는 차이가 있다.)

- ① 산을 (보는 / 본) 나
- ② (솟는 / 솟은) 피
- ③ 맛이 (*달는 / 단) 과일
- ④ 매우 (*아름답는 / 아름다운) 꽃

○ ‘의도’를 뜻하는 ‘-려’나 ‘목적’을 뜻하는 어미 ‘-러’와 함께 쓰일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못하면 형용사이다.

- ① 김씨는 공책을 사려 나갔다.
- ② 철수는 명희를 때리려 한다.
- ③ 명자는 아름다우려 화장을 한다.
- ④ 명자는 예쁘려 화장을 한다.

○ 동사는 명령형 어미 ‘-어라’와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할 수 있는 데 반하여, 형용사는 이러한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 ① 철수야 일어나라.
- ② 우리 심심한데 수수께끼 놀이나 하자.
- ③ 명자야, 오늘부터 착해라.
- ④ 말자야, 우리 오늘부터 성실하자.

(2) 보조 용언 - 용언 중에는 혼자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용언

① 보조 용언은 기본적으로 선행하는 본용언의 어미가 ‘-아/-어, -게, -지, -고’로 한정된다.

② 보조 동사 - 동사처럼 활용

이 소리를 한번 들어 보아라. 공책은 책상 위에 얹어 두었다.

③ 보조 형용사 - 형용사처럼 활용

나도 좋은 시를 많이 읽고 싶다. 오늘은 날씨가 춥지 않다.

④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별

용언과 용언이 이어질 때 보조용언은 본용언의 뜻을 도와 주게 된다. 따라서, 보조용언을 단독으로 쓰면 문법에 어긋나서 서술어가 될 수 없거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물을 마시고 싶다. → 물을 싶다.*

옷을 입어 보다.(try on) → 옷을 보다.(see)

(한글 맞춤법 47 항)

☞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불이 꺼져 간다. - 불이 꺼져간다.
- 내 힘으로 막아 낸다. - 내 힘으로 막아낸다.

* 다만, 앞 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 조사
- 네가 던벼들어 보아라. - 합성동사



품사

(3) 용언의 활용 -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변갈아 결합하는 현상
(용언이 문장에서 쓰일 때, 고정된 부분을 어간, 그 뒤에 붙어서 변화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가다'의 활용형 : 가고, 가니, 가면, 가니, 간

- 여러 가지 활용형 중에서 어간에 어미 '-다'가 결합한 것을 기본형이라고 부른다.
- 기본형은 모든 활용형을 대표하여 표제어로 사전에 오른다.

① 규칙 활용 :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에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규칙적인 것.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바뀌지 않거나,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의 바뀜이 국어의 보편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되는 활용

예) 생기- + -고 → (생기고) (생기고) :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다.

먹- + -는 → (먹는) (먹는) :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바뀜

- 자음동화로 설명

따르- + -아 → (따라) (따라) : 음운 탈락(모음 탈락)으로 설명

저물- + -니 → (저무니) (저무니) : 음운 탈락(자음 탈락)으로 설명

※ 용언의 활용에서 음운의 탈락은 규칙 활용으로 본다.

"ㄹ" 탈락 : 저무니 (저무니), 도는 (도는), 사니까 (사니까)

"으" 탈락 : 들러 (들러), 우러러 (우러러), 치러 (치러)

"ㅎ" 탈락 : 좋아서 (조아서), 쌓여 (짜여)

② 불규칙 활용 ;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

○ 어간이 바뀌는 경우

- 'ㅅ' 불규칙 = ㅅ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

예) 잇+어→이어, 짓+어→지어, 낫다(勝,癒)→나아

[규칙 활용] 벗어 = 버서, 버스니 / 씻어 = 씨서, 씨스니

- 'ㄷ' 불규칙 =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함

예) 든+어→들어, 걷(步)+어→걸어, 묻(問)+어→물어, 깨닫다, 싣다(載)

[규칙 활용] 묻어(埋) = 무더, 무드니 / 언어 = 어더, 어드니

- 'ㅂ' 불규칙 =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우'로 변함

예) 눕+어→누워, 줍+어→주워, 돕+아→도와, 덩+어→더워

[규칙 활용] 잡아 = 자바, 자브니 / 뽑아 = 뽀바, 뽀브니

- 'ㄹ' 불규칙 = 'ㄹ'가 모음 어미 앞에서 'ㄹㄹ' 형태로 변함

예) 흐르+어→흘러, 이르+어→일러(謂, 早), 빠르+아→빨라, 나르다, 고르다

[규칙 활용] 따라 = , 치러

- '우' 불규칙 = '우'가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

예) 퍼(푸+어)

[규칙 활용] 주어, 누어

○ 어미가 바뀌는 경우

- ‘여’불규칙 = 하-’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여’로 변함

예 공부하+어→공부하여, ‘하다’와 ‘-하다’가 붙는 모든 용언

[규칙 활용] 파+아→파

- ‘러’불규칙 = 어간이 ‘르’로 끝나는 일부 용언에서, 어미 ‘-어’가 ‘러’로 변함

예 이르(至)+어→이르러, 누르(黃)+어→누르러, 푸르+어→푸르러

[규칙 활용] 치르+어→치러

○ 어간과 어미가 바뀌는 경우

- ‘ㅎ’불규칙 =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 오면 어간의 일부인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변함

예 하얗+아서→하얗서, 파랗+아→파래

[규칙 활용] 좋+아서→좋아서



품사

(4) 어미의 이해

가시였겠고				
가-	-시-	-었-	-겠-	-고
어간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

- | |
|---|
| ① 한국의 가을 하늘은 맑 <u>다</u> , 구나, 니?
② 바람이 불 <u>면</u> , 어서 우리는 연을 날렸다.
③ 나는 네가 최선을 다하 <u>는</u> 사람이 <u>되</u> 기를 바란다.
④ 꽃이 <u>아름답</u> 게 피었다. |
|---|

↳ ① 종결어미 ② 연결어미 ③ 관형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④ 부사형 전성어미

✓ **전성 어미** : 용언으로 하여금 명사, 관형사,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어미

- 명사형 전성 어미 : -ㅁ/음/기/개/이 등
- 관형사형 전성 어미 : ‘-(으)ㄴ, -는, -(으)ㄹ, -던’
- 부사형 전성 어미 : ‘-이, -게, -도록, -(아)서’
- 어말 어미의 품사 기능성, 즉 형태론적 관점에서의 어미 분류 방식

어 말 어 미	종결 어미	
	전 성 어 미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출제 Point





품사

품사 개념 4 수식언

4. 수식언 : 관형사, 부사 -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말

(1) 관형사 - 체언 앞에 놓여서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며,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다.

① **지시 관형사** : 이, 그, 저 - 어떤 대상을 가리킴.

그 사람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의미	용례
공간	이, 그, 저, 요, 고, 조, 이런, 그런, 저런, 다른(他)<다른(異) - 형용사>, 못, 무슨, 아무 ...
시간	옛, 올, 현(現), 신(新), 구(舊), 전(前), 후(後), 래(來) ...

② **성상 관형사** : 새, 현 -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 줌.]

새 책은 제목이 무엇이더라?

의미	용례
상태	은깎, 새, 현, 헛, 순(純), 주(主), 정(正), 준(準), 대(大), 소(小) ...
정도	고작, 겨우, 진짜, 단지(但只), 유독(惟獨), 무려(無慮), 약(若)...

③ **수 관형사** : 세, 다섯, 일곱째 - 수량이나 순서라는 수 개념을 나타냄.

세 사람, 연필 다섯 자루, 일곱째 딸, 제삼(第三) 회 대회

의미	용례	
양수	한, 두, 세(석, 서), 네(넉, 너), 다섯(닷), 엿,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석, 서)...스무, 스물한, 스물두... 한두, 두세, 서너, 너댓...	
서수	정수	첫, 첫째, 둘째, 셋째, ...제일(第一), 제이(第二) ...
	부정수	한두째, 두어째, 몇째, 여남은째 ... , 몇몇, 여러 ...

✓ **관형사와 접두사의 차이점**

접두사는 연결되는 말의 범위가 제한되고 그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없다. 또한 관형사는 꾸밈을 받는 말과 띄어 쓰고 접두사는 붙여 써야 한다.

저 예쁜 꽃 맨발(o) / 맨 예쁜 발(x)

(2) 부사

- ☞ 주로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말.
- ☞ 부사는 용언 앞에서 그 뜻을 ‘어떻게’의 방식으로 꾸며 준다.
- ☞ 부사 :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하는 것을 본래의 기능으로 하는 단어이지만, ‘참’과 같이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이나, ‘바로’, ‘특히’ 같이 일부 체언 앞에 와서 그 체언에 특별한 뜻을 더하여 주는 단어들도 부사로 인정한다.

올해는 눈이 참 많이 내린다. / 요즘은 너무 바빠서 등산을 못 간다.
 내가 찾은 사람은 바로 너야. /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학생들이 부지런하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 정치, 경제 및 문화
 사람들은 비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 └ 성분부사 ; (참, 많이, 너무, 못, 특히, 간절히)
- └ 문장부사 ; (다행히)
- └ 접속부사 ; (및, 그러나)

• 문장의 어느 한 성분만 수식 (성분 부사)

문장에서의 역할	의 미	용 례	
성분 부사	성상 부사	밝히, 따듯이, 잘, 선히, 슬피, 즐겁이, 바로, 겨우, 아주, 모두, 다, 제각각, 멀리, 홀로, 참, 많이, 너무, 특히, 애타게	
	지시 부사	공 간	이리, 그리, 저리, 이리저리, 요리조리, 여기, 거기, 저기, 어디, 여기저기
		시 간	일찍이, 접때, 이때, 장차, 언제, 아까, 곧, 이미, 바야흐로, 앞서, 문득, 난데없이, 매일
	부정 부사	못, 안(아니)	
	의성 부사	황황, 철썩철썩, 데굴데굴	
	의태 부사	느릿느릿, 울긋불긋, 사뿐사뿐	

•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 (문장 부사)

문장에서의 역할	의 미	용 례	
문장 부사	양태 부사	과연, 분명히, 아닌 게 아니라, 미상불, 어찌, 도리어, 게다가, 확실히, 의외로	
	접속 부사	문장 접속 부사	그러나, 그러니까, 하지만, 한데, 더욱이, 게다가
		단어 접속 부사	곧, 즉, 또, 또한, 또는 혹



품사

출제 Point



Step 1


1.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단어나 어간이 형태상의 변화 없이 품사를 달리하여 쓰이는 경우를 ‘품사의 통용’이라 한다. 이는 결국 동일한 형태의 한 단어가 두 가지 품사로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 된다. 예를 들어, ‘이는 우리가 생각하던 바입니다.’에서의 ‘이’와 ‘이 나무는 모양새가 아주 좋다.’에서의 ‘이’ 같은 것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앞의 것은 대명사이지만, 뒤의 것은 관형사이다.

- ① — 너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니?
— 무엇을 잘못 먹었기에 배가 아프지?
- ② — 네가 본 대로 다 말해 주기 바란다.
— 누나 말대로 하면 일이 잘 풀릴 거야.
- ③ — 그의 키는 평균치보다 훨씬 크다.
— 이 땅은 비옥하여 식물이 잘 크다.
- ④ — 남부 지역은 기온이 높아서 농사가 잘 된다.
—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에 닿기야 하겠어?
- ⑤ — 우리 은사님은 평생을 바쳐 교육에 봉사하셨다.
— 저 사람은 평생 놀고먹을 팔자를 타고났다 봐.



품사

2. EBSi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단어의 품사가 반드시 하나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단어가 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둘 이상의 품사에 소속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의 ‘언제’는 잘 모르는 때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였고, ㉢의 ‘언제’는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때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인 것이다.

㉡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시간이 나면 언제 밥이나 먹읍시다.

① 그는 길을 <u>잘못</u> 들어서 헤맸다.	그는 이번에도 <u>잘못</u> 을 저질렀다.
② 그릇에 담긴 물을 모두 <u>쏟</u> 았다.	남은 인원을 모두 <u>합</u> 해도 열이 안 된다.
③ 그 둘은 <u>서로</u>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u>서로</u> 가 힘을 합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④ 얼마나 잘하는지 <u>어디</u> 한번 보자.	밥을 먹고 <u>어디</u> 같이 가 볼 데가 있다.
⑤ 그곳은 <u>비교적</u>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책의 제목은 ‘한중 설화의 <u>비교적</u> 고찰’로 결정되었다.

3. 다음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의 예를 보인 것이다. ㉠ ~ ㉤의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을 ㉠언제부터 좋아 했어요?	친구가 시험을 ㉡언제 보니?
이 방이 ㉢밝다.	날이 ㉣밝는다.
㉤그 일은 너무 어렵다.	㉥그가 수학을 좋아한다.
㉦만세, 우리가 이겼다.	그들은 ㉧만세를 불렀다.
㉨한참을 기다리고 나니 그가 왔다.	언니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 ① ㉠이 포함된 ‘언제부터’가 ‘그 사람’과 자리를 바꿀 수 있으므로 ㉠은 대명사이고, ㉡은 동사 ‘보니’바로 앞에서 꾸며 주어야 하므로 부사이다.
- ② ㉢은 현재 시제 평서형으로 ‘-다’를 썼으므로 형용사임을 알 수 있고, ㉣은 현재 시제 평서형으로 ‘-는다’를 썼으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③ ㉤은 뒤의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은 조사가 붙고 ‘민수’와 같은 명사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대명사이다.
- ④ ㉦은 감정을 나타내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독립적으로 쓰였으므로 감탄사이고, ㉧은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고 격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명사이다.
- ⑤ ㉨은 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고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명사이고, ㉩은 서술어 ‘바라보았다’를 꾸며 주므로 부사이다.



품사

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 ㉠ •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이이,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 ㉠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2인칭)
 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3인칭)

- ① 가.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 ② 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③ 가.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 ④ 가.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나.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 ⑤ 가. 우리 먼저 갈게요.
 나.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5. EBSi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닌 것은?

대명사 중에는 한 문장 안에서 앞서 나온 체언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 재귀 대명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다.”에 쓰인 ‘자기’는 앞서 나온 체언인 ‘철수’를 다시 나타내기 위해 쓰인 재귀 대명사이다. 그런데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재귀 대명사와 일반적인 대명사 둘 다로 쓰이는 것들도 있어서 이를 문맥을 고려하여 잘 구분해야 한다.

- ①
 - 선생님께서 전도 함께 오라고 하셨습니다.
 - 소년은 전도 모르게 자리에 주저앉았다.
- ②
 - 형님께서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군요.
 - 동생들은 내가 저희 때문에 밥을 차린 줄 안다.
- ③
 - 이번에 너희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
 - 누나가 너희는 모두 집에 있으라고 말했다.
- ④
 - 여보, 언제나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게요.
 -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아끼셨다.
- ⑤
 - 교실 유리창을 깬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 그 꼬마는 제가 궁금한 것을 선생님께 여쭙었다.



품사

6. EBSi <보기>의 ㉠~㉤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조사 중에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도 있다.
 ㉡ 조사 중에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도 있다.
 ㉢ 조사는 앞말의 음운 환경에 따라 달리 선택되기도 한다.
 ㉣ 둘 이상의 조사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 조사는 구나 절 단위에 결합할 수도 있다.

- ① ㉠: 누나가 어머니의 선물을 사고 있다.
- ② ㉡: 개나리와 진달래를 아빠랑 내가 심었다.
- ③ ㉢: 그녀는 학원에 가지 않고 친구에게 갔다.
- ④ ㉣: 아이에게도 아이만의 비밀이 있는 법이다.
- ⑤ ㉤: 나는 골목과 마당을 서성이며 형이 오기를 기다렸다.

7. <보기>의 설명에 따라 ㄱ~ㄴ의 문장에서 조사를 분류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사는 체언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수한 뜻을 더해 주는 말이다.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로 분류한다.


ㄱ. 개와 고양이는 공을 좋아한다.
 ㄴ. 계절이 드디어 봄이 되었다.
 ㄷ. 나는 오빠와 함께 청소를 했다.
 ㄹ.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

- ① ㄱ보다 ㄴ의 격 조사 개수가 1개 더 많다.
- ② ㄴ의 ‘이’는 모두 격 조사이다.
- ③ 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가 모두 있는 문장은 ㄱ과 ㄷ이다.
- ④ ㄱ의 보조사의 개수보다 ㄴ의 보조사의 개수가 1개 더 많다.
- ⑤ ㄴ과 ㄷ의 격 조사의 수는 동일하다.

8. 다음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목표	아래의 탐구 자료를 통해 주격 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의 특성을 알아본다.
탐구 자료	㉠ 동생(은/이) 학교에 갔어. ㉡ 수박(은/*이) 철수가 먹었어. ㉢ 부산에(는/*가) 철수가 갔지. ㉣ 학교에서(는/*가) 열심히 공부해라. ㉤ 빨리(는/*가) 먹지 못하겠다.
탐구 결과	(가) <input type="text"/>

- ① ㉠을 보니, ‘은/는’과 ‘이/가’는 주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군.
- ② ㉠, ㉡을 보니, ‘은/는’이 항상 ‘이/가’와 교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군.
- ③ ㉠~㉤을 보니, ‘은/는’은 ‘이/가’와 달리 다양한 문장 성분에 붙을 수 있군.
- ④ ㉢, ㉣을 보니, ‘은/는’은 ‘이/가’와는 달리 앞말에 붙어 앞말 을 필수 성분으로 만드는군.
- ⑤ ㉢, ㉣, ㉤을 보니, ‘은/는’은 ‘이/가’와 달리 체언 이외의 말 뒤에도 결합할 수 있군.

9. EBS  <보기> 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접속 조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深山(심산)에 드러 果實(과실)와 물와 좌시고(『월인석보』 권 1) [현대어 풀이] 깊은 산에 들어가 과일과 물을 드시고 • 입시울와 혀와 엄과 니왜 다 죠흐며(『석보상절』 권 19) [현대어 풀이] 입술과 혀와 어금니와 이가 다 좋으며 • 하늘과 싸콧 슺시예(『두시언해』 권 8) [현대어 풀이] 하늘과 땅의 사이에
---	---

- ① ‘물와’, ‘니왜’를 보니 중세 국어에서는 체언이 나열될 때 접속 조사가 마지막 체언과 결합하기도 했군.
- ② ‘입시울와’, ‘혀와’를 보니 앞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와 관계없이 ‘와’가 사용되었군.
- ③ ‘니왜’를 보니 접속 조사 ‘와’는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왜’와 같은 형태로 실현되기도 하였군.
- ④ ‘하늘과’를 보니 접속 조사 ‘과’는 ‘하늬’와 같은 ㅎ 종성 체언의 ㅎ과 결합한 형태로 실현되기도 하였군.
- ⑤ ‘싸콧’을 보니 ㅎ 종성 체언 ‘쌍’과 관형격 조사 ‘스’ 사이에 접속 조사가 실현되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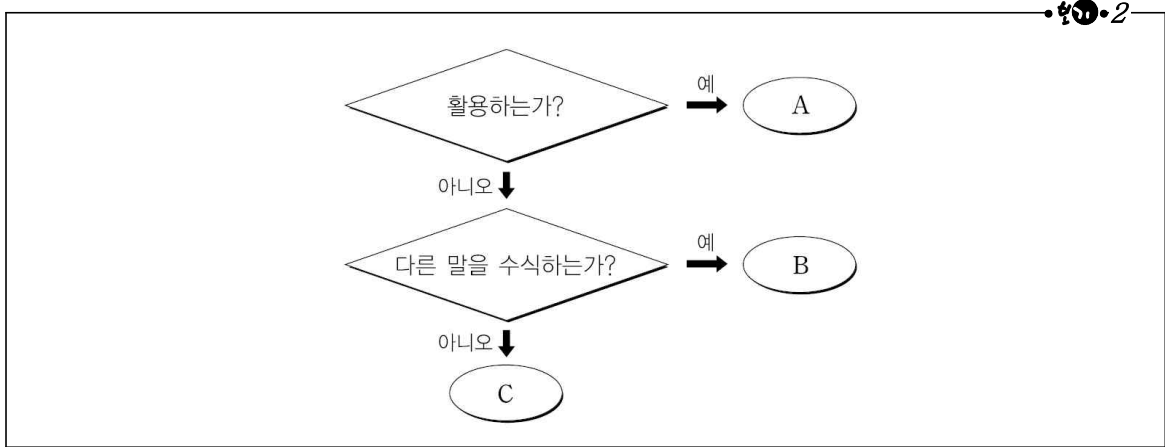


품사

10. 다음은 품사 분류 과정의 일부이다. <보기 1>에 사용된 단어 중 <보기 2>의 A~C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묶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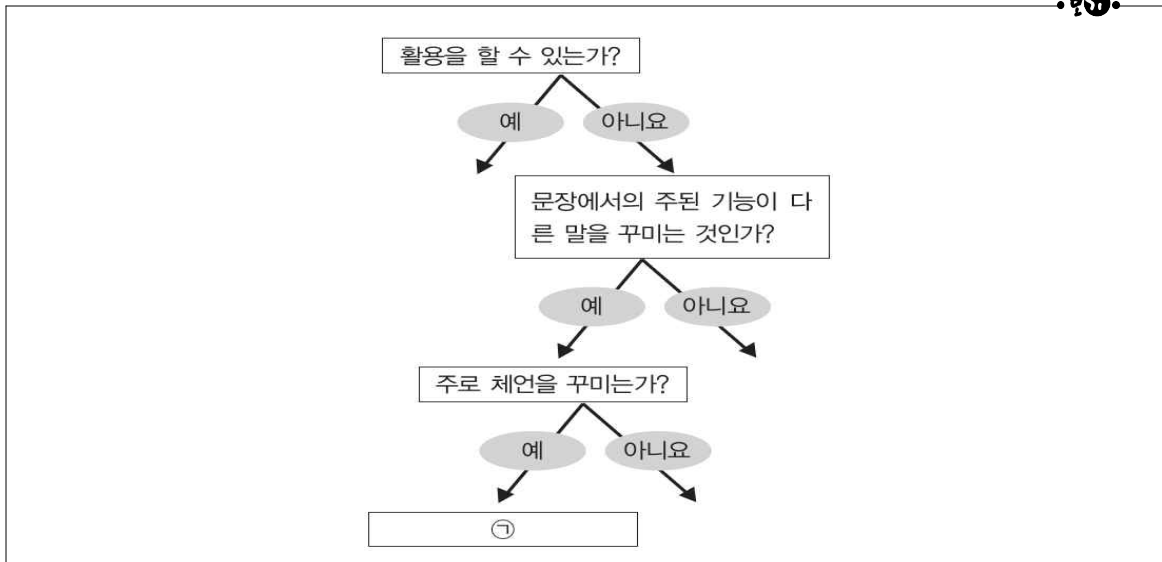
• 40 • 1

새 집에 심은 나무가 잘 자란다.



	A	B	C
①	새, 심은	잘, 예, 가	집, 나무, 자란다
②	새, 자란다	심은, 잘	집, 예, 나무, 가
③	새, 심은	예, 가	집, 나무, 잘, 자란다
④	심은, 자란다	새, 잘	집, 예, 나무, 가
⑤	심은, 자란다	새, 예, 잘, 가	집, 나무

11. <보기>는 품사 분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단어 중, ㉠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그날이 왔다.
- ② 동생은 못 본 사이에 홀쩍 키가 컸다.
- ③ 우리는 전망이 좋은 곳으로 이사했다.
- ④ 그는 성공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 ⑤ 옛말에 예쁜 자식은 매로 키우라고 했다.



품사

12. EBSi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예문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한글

국립 국어원에서는 더 정확한 국어사전을 만들기 위해 특정 표제어의 새로운 뜻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아래의 ‘-고서’는 2015년 4/4분기에, ‘나’는 2016년 1/4분기에 뜻을 추가하였다.

표제어	원래의 뜻풀이	추가된 뜻풀이
-고서 「어미」	앞뒤 절의 두 사태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앞선 것임이 강조된다.	앞의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뒤의 사실이 성립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그는 손짓을 하고서 밖으로 나갔다.	¶ _____ ㉠ _____
나 「조사」	마음에 차지 아니하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마치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쓰기도 한다.	어떤 대상이 최선의 자격 또는 조건이 됨을 뜻하는 보조사.
	¶ 숙제는 못해 가도 늦지나 말아야지.	¶ _____ ㉡ _____

	㉠	㉡
①	너도 구두를 신고서 산길을 걸어 봐.	약속 시간에 늦지 말고 빨리나 오세요.
②	군인이 아니고서 말투가 그러지는 않겠지.	형이 하는 이야기나 들어 보고 결정하자.
③	이제 시작해 가지고서 숙제를 마칠 수 있겠어	우리나 되니까 이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거다.
④	그녀는 아들을 업고서 병원까지 달려갔다.	이걸 동생 장난감으로나 쓸 수 있으려나.
⑤	형은 운동을 마치고서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여섯 시나 되니까 이제 좀 날이 선선히진다.

13. <보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전에서 ㉠~㉣에 추가될 수 있는 용례를 찾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는¹’ [조사]

㉠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꿀은 먹어도 배는 먹지 마라.

㉡ 문장 속에서 어떤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나는 용감한 사나이다.

㉢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식사는 해야지.

○ ‘~는²’ [어미]

㉣ (다른 어미 앞에 붙어)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예) 형님께서 이 학교에 근무하시는군요.

○ ‘~는³’ [어미]

㉤ 앞말이 관형사 구실을 하게 하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예) 그는 종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만 보고 있다.

- ① ㉠ 눈이 많이눈 오지 않았다.
 ② ㉡ 나는 본디 타고 난 산사람이다.
 ③ ㉢ 주변에 놀러 가더라도 멀리는 가지 마라.
 ④ ㉣ 적게 먹는다고 무조건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
 ⑤ ㉤ 강에서 민물 계를 잡아다가는 서로 싸움을 시켰다.

14.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할 때 ㉠~㉣ 중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학생의 질문] ‘그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낸다.’에서 ‘지’는 붙여 쓰는데, ‘이곳에 이사 온 지 벌써 일 년이다.’에서 ‘지’는 왜 띄어 쓰는 것인가요?

[선생님의 설명] 첫 번째 문장의 ‘-니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뒤에 나오는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짓는 연결 어미입니다. 따라서 어간 ‘부지런하-’에 붙여 써야겠지요. 두 번째 문장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예문 중에서 띄어쓰기가 옳은 것을 골라 볼까요?

[예문]

㉠ 그를 만난지도 꽤 오래되었다.
 ㉡ 헤어진지 10년은 되는 것 같구나.
 ㉢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른다.
 ㉣ 할아버님께서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 외모만으로는 그가 총각인 지 알 수가 없다.
 ㉥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품사

15. <보기 1>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 2>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 1
- (1)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을,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 (2)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은 동사 어간에만 결합할 수 있다.
 - (3)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사 어간과, ‘-(으)ㄴ’은 형용사 어간과 결합한다.
 - (4) 동사에는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가 쓰일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그러기 어렵다.
 - (5)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동사 어간에만 결합한다.

- 1 • 2
- ㄱ. 그는 겹옷을 입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 ㄴ. 매우 {*아름답는/아름다운} 꽃
 - ㄷ. 반환점을 {도는/둔} 선수
 - ㄹ. 그 사람 말을 {믿어라/믿자}.
 - ㅁ. 이 책상의 크기가 {*작아라/*작자}.

- ① ㄱ : ‘일어난다’는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동사야.
- ② ㄴ : ‘아름답는’이 쓰일 수 없는 이유는 ‘아름답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이야.
- ③ ㄷ : ‘둔’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있으므로 ‘돌다’에는 형용사적 특성이 있어.
- ④ ㄹ :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믿다’는 동사야.
- ⑤ ㅁ : ‘작다’에는 선어말 어미 ‘-는-/-ㄴ-’이 결합할 수 없을 거야.

16. 다음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어간과 어미를 분류하고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용언은 문장 속에서 활용할 때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때 형태가 고정된 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활용할 때 어간에 붙어 단어형을 변화시키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지요. 어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단어의 끝자리에 들어가는 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의 앞 자리에 들어가는 ㉡선어말 어미로 나뉘고, 다시 어말 어미는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문장에서 어간과 어미를 찾아보고, ㉠~㉤으로 분류해 봅시다.

거센 바람이 불어서 어머니께서는 집으로 가셨다.

- ① ㉠: 형용사 어간은 ‘거세-’, 동사 어간은 ‘불-’, ‘가-’이다.
- ② ㉡: ‘가셨다’의 ‘-셨-’을 통해 현재 시제와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③ ㉢: ‘가셨다’의 ‘-다’를 통해 평서형 종결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불어서’의 ‘-어서’를 통해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하고 있다.
- ⑤ ㉤: ‘거센’의 ‘-ㄴ’을 통해 ‘거세다’의 서술적 기능을 관형어의 기능으로 바꾸어 주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전성 어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말 어미는 활용 어미 중 맨 뒤에 오는 어미를 말하며, 그 종류에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어미가 있다.

그중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로, 관형사형 어미에는 ‘-(으)ㄴ’, ‘-는’, ‘-(으)ㄹ’, ‘-던’이 있으며, 명사형 어미에는 ‘-(으)ㄹ’, ‘-기’가 있고, 부사형 어미에는 ‘-게’, ‘-도록’, ‘-(아)서’ 등이 있다.

- ㄱ.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 ㄴ. 내가 열심히 공부했음을 믿는다.
- ㄷ. 내가 잠을 자던 침대를 정리했다.
- ㄹ. 비가 와서 운동장을 뛰기가 어렵다.
- ㅁ. 나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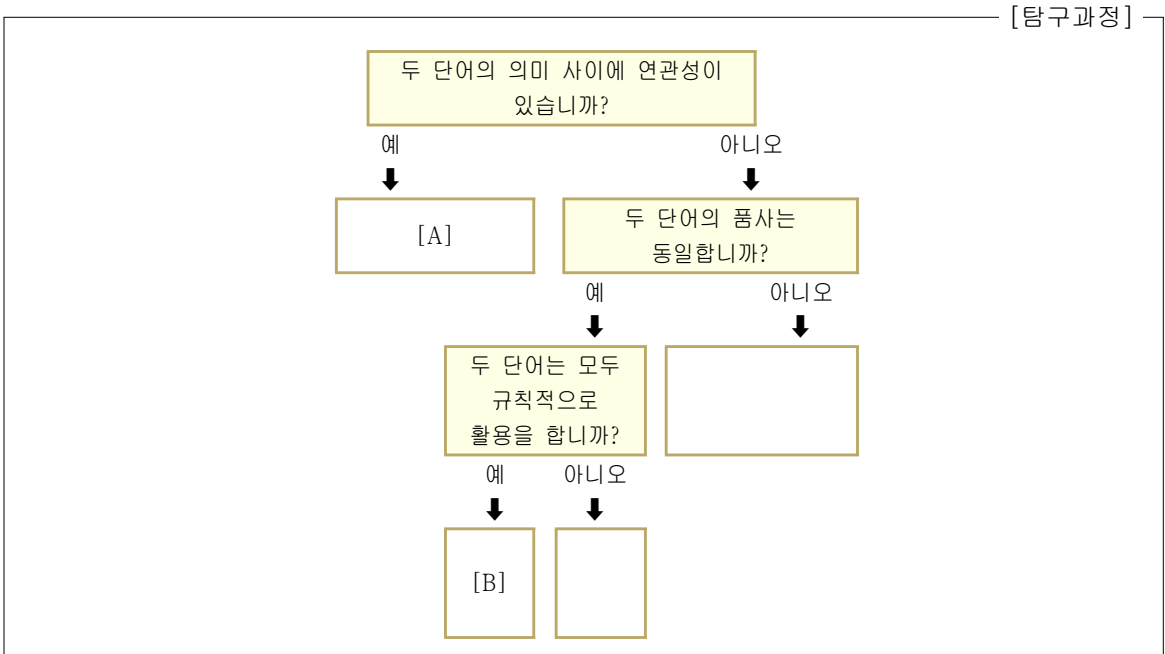
- ① ㄱ의 ‘아름답게’는 ‘아름답-’이라는 어간에 ‘-게’라는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피었다’는 서술어를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② ㄴ의 ‘공부했’은 ‘공부하-’라는 어간에 ‘-음’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③ ㄷ의 ‘자던’은 ‘자더-’라는 어간에 ‘-ㄴ’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뒤에 오는 ‘침대’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④ ㄹ의 ‘뛰기’는 ‘뛰-’라는 어간에 ‘-기’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⑤ ㅁ의 ‘다할’은 ‘다하-’라는 어간에 ‘-(으)ㄹ’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생각’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있군.



품사

18. <보기>의 밑줄 친 단어를 <탐구 과정>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A]와 [B]에 들어갈 단어를 차례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 ㄱ. 뜨다 : 그는 동작이 영 뜨다. / 종이배가 물에 뜨다.
- ㄴ. 붓다 : 은행에 적금을 붓다. / 자루에 밀가루를 붓다.
- ㄷ. 묻다 : 옷에 잉크가 묻다. / 그에게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 묻다.
- ㄹ. 갈다 : 부속품을 좋은 것으로 갈다. / 구슬을 만들기 위해 옥돌을 갈다.



- | | [A] | [B] |
|---|-----|-----|
| ① | ㄱ | ㄹ |
| ② | ㄴ | ㄷ |
| ③ | ㄴ | ㄹ |
| ④ | ㄷ | ㄱ |
| ⑤ | ㄹ | ㄷ |

19. 다음은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이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기도 하지만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습을 달리하기도 한다.

- ㄱ. 묻다[埋]: 묻다, 묻고, 묻으니, 묻어서, 물었다, 물어라
- ㄴ. 묻다[問]: 묻다, 묻고, 물으니, 물어서, 물었다, 물어라

ㄱ의 '묻다[埋]'는 활용을 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규칙적이므로 이를 규칙 활용이라 한다. ㄴ의 '묻다[問]'는 어간 '묻-'이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물-'로 바뀌는데 이처럼 어간과 어미의 변동을 음운 규칙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을 때 이를 불규칙 활용이라 한다. 불규칙 활용은 용언의 ㉠어간이 바뀌는 경우와 ㉡어미가 바뀌는 경우,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ㄴ은 어간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① ㉠: 많이 걸어서 허리가 아프다.
- ② ㉠: 얼른 밥을 지어 줄게.
- ③ ㉡: 부부는 서로 도우며 사는 법이다.
- ④ ㉡: 운동을 열심히 하여 건강을 관리하자.
- ⑤ ㉢: 오늘은 하늘이 파래서 기분이 좋다.

20. 다음은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 중 일부이다. ㉠~㉣에 해당하는 용례를 추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용언의 불규칙 활용 중에서 어간이 바뀌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 ㉠ 'ㄷ' 불규칙: 어간의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바뀐다.
예 내 말을 잘 들어 보아라.
- ㉡ 'ㅂ' 불규칙: 어간의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우'로 바뀐다.
예 날이 유난히 더워 힘들겠구나.
- ㉢ 'ㅅ' 불규칙: 어간의 'ㅅ'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함.
예 이 다리는 섬을 육지와 이어 줍니다.
- ㉣ 'ㄹ' 불규칙: 어간의 'ㄹ'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ㄹ'로 바뀐다.
예 옥상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 ㉤ '우' 불규칙: 어간의 '우'가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함.
예 지하실에 고인 물을 꺼 날랐다.

- ① '짐을 잔뜩 실어 보냈다.'의 '실어'는 ㉠에 해당한다.
- ② '길에서 책을 주워 가방에 넣었다.'의 '주워'는 ㉡에 해당한다.
- ③ '밥을 지어 부모님을 봉양하다.'의 '지어'는 ㉢에 해당한다.
- ④ '그 사람과는 성격이 달라 같이 일하기 힘들다.'의 '달라'는 ㉣에 해당한다.
- ⑤ '개에게 먹이를 줘서 낫지 않게 해라.'의 '줘서'는 ㉤에 해당한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문법 지식을 탐구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a. 그와 나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b. 다른 학생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2. a. 이것은 철수 책이다.
 b. 이번에 새 책을 많이 샀다.
 c. 책상에 새로운 책이 놓여 있다.
 d. 저 분은 이번에 새로 오신 선생님입니다.
3. a. 이 헌 신발은 철수의 것이다.
 b. 저 새 책은 누구의 책이냐?

- ① 1.a의 ‘다른’은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므로 1.b의 관형사 ‘다른’과 형태는 같아도 기능은 다르다.
 ② 2.a의 ‘철수’는 명사로서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지만, 2.b의 ‘새’는 관형사로서 뒤에 조사가 붙기 어렵다.
 ③ 2.c의 ‘새로운’은 형용사 ‘새롭다’가 활용한 형태이므로 형태가 바뀌지 않는 관형사와 차이가 있다.
 ④ 2.d의 ‘새로’는 용언 ‘오신’을 꾸미는 부사인데, 수식언이라는 점에서 관형사와 공통점이 있다.
 ⑤ 3.a의 관형사 ‘이’는 관형사 ‘헌’을 꾸미지만, 3.b의 ‘저’는 체언 ‘책’을 꾸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4. ㄱ~ㅅ을 바탕으로 부사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ㄱ. 하늘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ㄴ. 그는 매우 멀리 여행을 떠났다.
 ㄷ. 과연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ㄹ. 이것은 아주 새 책이나 다름없다.
 ㅁ. 그와 헤어진 지 꽤 열흘이 지났다.
 ㅂ. 저리 잘 안 먹는 아이가 키는 제법 크구나.

- ① ㄱ을 보니 부사는 보조사와 결합하기도 하는군.
 ② ㄴ을 보니 부사는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 있군.
 ③ ㄷ을 보니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는군.
 ④ ㄴ과 ㅂ을 보니 여러 개의 부사가 연달아 나타날 때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없군.
 ⑤ ㄹ과 ㅁ을 보니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는 있지만 관형사를 수식할 수는 없군.



품사

Step 2

25. 다음은 '학교 문법의 품사 분류 기준을 알고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일부이다.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다른 말을 수식하는 말을 구별해 본다.
- (나) '무엇이 어떠하다'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말과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을 구분해 본다.
- (다) '무엇이 어찌한다'와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에서 '어찌한다'에 해당하는 말을 구분해 본다.
- (라)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 중에서 생략될 수 있는 것과 생략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본다.
- (마) 주어나 목적어 위치에 나타나는 말 중에서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는 말,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구분해 본다.

- ① (가), (나)
- ② (다), (라)
- ③ (가), (나), (마)
- ④ (가), (다), (마)
- ⑤ (나), (다), (라)

26. 다음은 학교 문법에서 각 품사가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품사	(가) 명사, 대명사, 수사	(나) 동사, 형용사	(다) 관형사				
문장 성분	㉠ 주어	㉡ 목적어	㉢ 보어	㉣ 서술어	㉤ 관형어	㉥ 부사어	㉦ 독립어

- ① (가)가 ㉠~㉦으로 쓰일 때 이를 표시하는 각각의 격조사가 존재한다.
- ② (가)가 ㉠으로 쓰일 때 결합하는 조사는 모두 ㉢으로 쓰일 때도 결합한다.
- ③ (나)가 ㉠으로 쓰이면 이 성분은 항상 안긴문장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 ④ (나)가 ㉡, ㉢으로 쓰일 때에는 전성 어미가 결합한다.
- ⑤ (다)는 ㉤으로 쓰일 때 다른 문법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는다.

27. '조사'의 쓰임을 알아보기 위해 국어와 영어를 비교했다. 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 나만 학생이다. (영어 : Only I am a student.)
나도 학생이다. (영어 : I am a studen too)
- ㉡ 영수가 순희를 사랑했다. = 순희를 영수가 사랑했다.
(영어 : Tom loved Mary. ≠ Mary loved Tom.)
- ㉢ 나는 그를 사랑한다. (영어 : I love him.)
그는 나를 사랑한다. (영어 : He loves me.)

- ① ㉠: 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부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 ② ㉠: 조사를 생략하더라도 문장 전체의 의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③ ㉡: 단어에 조사가 붙으면 다른 단어와의 문법적 관계를 규정한다.
- ④ ㉡: 조사의 도움으로 국어의 어순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 ⑤ ㉢: 조사가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체언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2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의 조사 중에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하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와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가 있다.

- ① '국수라도 먹으렴.'에서의 라도
- ② '영어야 철수가 도사지.'에서의 야
- ③ '그 과자를 먹어는 보았다.'에서의 는
- ④ '일을 빨리만 하면 안 된다.'에서의 만
- ⑤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다.'에서의 처럼



품사

29.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학습 활동을 하였다. 밑줄 친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자 료>

(가) 철수는 여의도에 한 회사에 취업했다.
 (나) 한 컴퓨터 회사가 관공서 직원들에 선물을 주었다.
 (다) 영주는 마루에 자는 강아지를 안아 주었다.
 (라) 그 독립투사는 혈서를 쓰려고 칼에 손가락을 베었다.
 (마) 그는 전주를 거쳐 남원에 자동차를 타고 떠났다.

- ① (가)의 ‘에’는 그대로 두는 게 좋겠어. 비교의 대상이 되는 장소 뒤에는 ‘에’가 어울리지.
- ② (나)의 ‘에’는 ‘에게’로 고치는 게 좋겠어. 기구나 단체를 뜻하는 명사 뒤에는 ‘에게’를 쓰잖아.
- ③ (다)의 ‘에’는 ‘에서’로 고치는 게 좋겠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뒤에는 ‘에서’를 쓰잖아.
- ④ (라)의 ‘에’는 맞는 표현이지만 ‘로’로 고쳐도 좋겠어. ‘에’와 ‘로’는 의도적으로 수단이나 도구를 이용할 때 쓰잖아.
- ⑤ (마)의 ‘에’는 맞는 표현이지만 ‘으로’로 고쳐도 좋겠어. ‘남원’이 목표점이니까 ‘으로’도 어울리지.

30. 다음은 어문 규정에 맞게 표기된 띄어쓰기의 용례와 그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옳은 것은?

띄어쓰기 용례	설명
㉠ 그 녀석 울음소리 <u>한번</u> 크구나. ㉡ <u>이말</u> <u>저말</u> 다 들어 보아야 한다.	(가) ㉠의 ‘한번’과 ㉡의 ‘이말’, ‘저말’은 ‘관형사+ 명사’의 구성이나 ‘한번’은 순서를 나타내므로 붙여 쓸 수 있고 ‘이말’, ‘저말’은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나므로 붙여 쓸 수 있다.
㉢ 어서 집으로 <u>돌아가세요</u> . ㉣ 불이 <u>꺼져만 간다</u> .	(나) ㉢의 ‘돌아가세요’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구성이므로 붙여 쓸 수 있다. ㉣의 ‘꺼져만 간다’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붙여 쓸 수 없다.
㉤ 하루 종일 <u>잠만</u> 잤다 ㉥ <u>집채만</u> 한 파도가 몰려온다.	(다) ㉤의 ‘만’은 조사, ㉥의 ‘만’은 접미사인데 모두 단어가 아니므로 붙여 쓴 것이다.
㉦ 비가 <u>올 듯하다</u> . ㉧ 과일에는 <u>배</u> , <u>감</u> <u>들이</u> 있다.	(라) ㉦의 ‘듯’, ㉧의 ‘들’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 것이다.
㉨ 서류를 <u>검토한바</u> 몇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볼 것은 <u>많은데</u> 시간이 모자란다.	(마) ㉨의 ‘-나바’, ㉩의 ‘-은데’는 ‘관형사형 어미+ 의존 명사’의 구성에서 유래하였으나 하나의 연결 어미가 되어 ‘바’와 ‘데’가 단어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붙여 쓴 것이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31~32] (㉠)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한 내용이고, (㉡)는 선생님이 제시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 **학생** : 저는 중세 국어에 쓰인 격 조사의 대표적인 형태와 용법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우선 주격 조사입니다. 주격 조사로는 ‘이’가 쓰였고, ‘가’는 16세기 후반에 가서 겨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격 조사라 하더라도 쓰이는 형태와 표기는 약간씩 달랐다고 합니다. 목적격 조사로는 ‘을/을’, ‘를/를’이 쓰였는데, 모음조화에 따른 이형태가 있다는 것 이외에는 현대 국어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 **선생님** : 발표를 아주 잘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례가 부족하다 보니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네요. 자, 선생님이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 줄 테니 집중해 보세요. 먼저 주격 조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 주격 조사 : 사름미(사름+ 이), 大王이
부테(부터+ ㅣ)
始祖ㅣ
드리, 너희

‘사름’은 명사이면서 자음으로 끝났어요. 이때 주격 조사 ‘이’는 제 모습으로 사용됩니다. 이어적기를 하면서 ‘사름미’로 표기된 것이고요. ‘大王(대왕)이’도 마찬가지로 원리로 보면 됩니다.

‘부터’의 경우에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 앞 모음과 결합하여 ‘부테’로 표기한 것입니다. 다만, ‘始祖(시조)ㅣ’의 경우에는 명사가 한자일 때에 한해 주격 조사 ‘ㅣ’가 분리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앞말이 ‘ㅣ’나 반모음 ‘ㅣ(j)’일 때는 외형상 아무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이를 영형태 또는 제로 주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다리)’, ‘너희’ 등에는 주격 조사가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음은 목적격 조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 목적격 조사 : 꽃 [花] + 을 → 고졸
벌 [蜂] + 을 → 버를
쇼 [牛] + 를 → 쇼를
거우루 [鏡] + 를 → 거우루를

중세 국어에서 목적격 조사의 경우에는 현대 국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가령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을/을’이 붙는데, 이때 앞말의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을’, 음성모음이면 ‘을’이 붙습니다.



품사

31.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격 조사는 앞말의 형태와 한자어 유무에 따라 표기가 달라졌군.
- ② 주격 조사 ‘ㅣ’는 앞말이 한자가 아니고 ‘ㅣ’나 반모음 ‘ㅣ(j)’ 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그 모음과 결합하여 한 음절을 이루는군.
- ③ 목적격 조사는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을/을’과 ‘를/를’을 구분하여 사용했군.
- ④ 목적격 조사의 경우는 모음조화가 파괴되고 있는 흔적을 보이고 있군.
- ⑤ ‘聖子(성자)’의 경우라면 한자어이면서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聖子(성자)ㅣ’로 표기해야겠군.

32. 발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기	분석	현대어 풀이
①	말썸ㅣ	말썸+ㅣ	말썸이
②	거우뤼	거우루+ㅣ	거울이
③	善慧(선혜)ㅣ	善慧(선혜)+ㅣ	선혜께서
④	빅[梨]	빅+ ∅(zero)	배가
⑤	놈ㅣ	놈+ㅣ	놈이(사람이)

33. <보기>를 바탕으로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0

世·세尊존사:일㉠ 술·보리·니萬·먼理:리外·외사㉡ :일·이시·나 ㉢ 눈·에·보논·가너·기스·벗㉣
 쇼·셔

㉠ 世·세尊존사:말 술·보리·니千千載·직上·쌍사:말·이시·나 ㉢ 귀·에·듣·논·가너·기스·벗쇼·셔
 - 「월인천강지곡」 -

[현대어 풀이]
 세존의 일을 말할 것이니, 만 리 밖의 일이시지만 눈에 보는 듯이 여기소서.
 세존의 말씀을 말할 것이니, 천 년 전의 말이시지만, 귀에 듣는 듯이 여기소서.

- ① ㉠에는 ‘일’을 듣는 대상을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군.
- ② ㉡에는 ‘세존’이 높여야 할 대상임을 고려하여 사용한 선어말 어미가 있군.
- ③ ㉢과 ㉣에는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다른 부사격 조사가 쓰였군.
- ④ ㉣은 현대 국어의 표기를 참조할 때, 현대 국어에서는 단모음화가 진행되었군.
- ⑤ ㉢의 ‘사’은 현대 국어의 ‘의’처럼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정답 및 해설

- 1) **답 ④ [품사의 통용]** ①에서는 '잘못'이 명사와 부사로, ②에서는 '대로'가 명사와 조사로, ③에서는 '크다'가 형용사와 동사로, ⑤에서는 '평생'이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그러나 ④는 두 문장의 '높다'가 모두 형용사로 쓰였으므로 '품사의 통용'과는 무관하다.
- 2) **답 ②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파악]** '모두 쏟았다'와 '모두 함해도'의 '모두'는 둘 다 '일정한 수효나 양을 빠짐없이 다'의 뜻을 지니는 부사로 쓰였다. '모두'가 부사가 아닌 명사로 쓰인 예문으로는 '식구 모두가 여행을 떠났다.', '누가 그곳에 가느냐는 모두의 관심이었다.' 정도를 들 수 있다. **오** ① '길을 잘못 들어서'의 '잘못'은 '틀리거나 그릇되게'의 뜻을 지니는 부사로 쓰였으며, '잘못을 저질렀다'의 '잘못'은 '잘하지 못하여 그릇되게 한 일이나 옳지 못하게 한 일'의 뜻을 지니는 명사로 쓰였다. ③ '서로 가깝게 지내다'의 '서로'는 '관계를 이루는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서, 각각 그 상대에 대하여나 쌍방이 번갈아서'의 뜻을 지니는 부사로 쓰였으며, '서로가 힘을 합하면'의 '서로'는 '짜를 이루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의 뜻을 지니는 명사로 쓰였다. ④ '어디 한번 보자'의 '어디'는 버르거나 다짐을 할 때 쓰이는 감탄사이며, '어디 같이 가 볼 데가 있다'의 '어디'는 가리키는 곳을 굳이 밝히지 않을 때 쓰이는 대명사이다. ⑤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의 '비교적'은 용언 '편리한'을 수식하는 부사이며, '비교적 고찰'의 '비교적'은 체언 '고찰'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 3) **답 ① [품사의 구별]** ㉠에서 '그 사람들'과 '언제부터'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언제'를 대명사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언제'는 수많은 시간 표현 명사, 예컨대 (중학교) 시절, (열 시간) 전, '어제' 등을 대신 가리킬 수 있고 "언제가 좋겠니?"에서처럼 격 조사도 붙을 수 있으므로 대명사이다. 또 ㉡은 "친구가 언제 시험을 보니?"와 같이 어순을 바꾸어 써도 성립하는데, 그 경우에도 '언제'는 '시험을 보니'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 ② 형용사는 해라체 현재 시제 평서형에서 '-다'를 쓰지만 동사는 '-나다/-는다'를 쓴다. 이로써 ㉢은 형용사이고 ㉣은 동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적으로도 ㉢은 밝은 상태를 표현하므로 형용사이지만 ㉣은 밝아지는 움직임을 표현하므로 동사이다. ③ ㉤은 '일'을 꾸며 주는 지시 관형사인 반면, ㉥은 격 조사가 붙어 있으므로 체언이고 그중에서도 명사를 대신해서 쓰였으므로 대명사이다. ④ ㉦은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이고 ㉧은 격 조사가 붙어 목적어로 쓰였는데 사물의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도 아니고 수량을 가리키는 수사도 아니므로 명사이다. 명사는 어떤 대상(구체적 사물 혹은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다. ⑤ 어떤 대상(구체적 사물 혹은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품사는 명사이다. ㉨은 목적격 조사가 붙어 목적어로 쓰였다. ㉨은 동사인 서술어 '바라보았다'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 4) **답 ① [대명사의 특징 파악]** ① 가- 우리를 낫춘 1인칭/ 나-'애들'을 가리키는 3인칭 **오** ② 3인칭 ③ 가- 3인칭/나-'그것'의 준말로 쓰인 사물대명사 ④ 2인칭 ⑤ 1인칭
- 5) **답 ③ [대명사의 특징 파악]** 두 예문의 '너희'는 모두 일반적인 2인칭 대명사로 쓰인 경우이다. **오** ① 첫 번째 문장의 '저'는 일반적인 1인칭 대명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저'는 앞서 나온 체언인 '소년'을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이다. ② 첫 번째 문장의 '저희'는 일반적인 1인칭 대명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저희'는 앞서 나온 체언인 '동생들'을 다시 가리키는 재귀대명사이다. ④ 첫 번째 문장의 '당신'은 일반적인 2인칭 대명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당신'은 앞서 나온 체언인 '할머니'를 다시 가리키는 재귀대명사이다. ⑤ 첫 번째 문장의 '제'는 일반적인 1인칭 대명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제'는 앞서 나온 체언인 '그 꼬마'를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이다.
- 6) **답 ③ [품사의 세부 유형 분류, 적용]** '에'와 '에게'는 앞말이 유정물인지, 무정물인지에 따라서 달리 쓰인다. 따라서 앞말의 음운 환경에 따라 달리 선택되는 ㉢의 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 예문으로는 '형이/누나가', '형을/누나를'처럼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조사가 달리 선택되는 경우가 적절하다. **오** ① '누나가'의 '가'는 주격 조사, '어머니의'의 '의'는 관형격 조사, '선물을'의 '을'은 목적격 조사이기 때문에 ㉠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② '와/과'와 '(이)랑'은 모두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④ '아이에게도'의 '에게도'는 '에게'와 '도'가, '아이만의'의 '만의'는 '만'과 '의'가 결합하여 쓰인 경우이다. ⑤ '골목과 마당을'의 '을'은 '골목과 마당'이라는 구에, '형이 오기를'의 '를'은 '형이 오기'라는 절에 결합한 조사이다.
- 7) **답 ③ [각 품사의 특징 파악]** 'ㄱ. 개와 고양이는 공을 좋아한다.'에서 '와'는 접속 조사, '는'은 보조사,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ㄷ. 나는 오빠와 함께 청소를 했다.'에서 '는'은 보조사, '와'는 부사격 조사, '를'은 목적격 조사이다. 'ㄴ'에서 '와'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생략이 가능하며 생략된 자리에는 윗표를 찍는다. 'ㄷ'에서 '와'는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그러므로 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가 모두 있는 문장은 'ㄴ'이다. **오** ① 'ㄱ'에서 격 조사는 '을'(목적격 조사) 하나이고, 'ㄷ'에서 격조사는 '이'(주격 조사), '이'(보격 조사) 두 개다. ② 'ㄴ'에서 앞에 나온 '이'는 주격 조사이고 뒤에 나온 '이'는 '되다' 앞에 있는 '봄이'의 문장 성분이 보여임을 나타내는 보격 조사이다. ④ 'ㄱ'에서 보조사는 '는' 하나이다. 'ㄷ'에서 '에는'은 격 조사 '에'에 보조사 '는'이 결합한 것이고, '도'는 보조사이므로 격조사 한 개와 보조사 두 개다. ⑤ 'ㄴ'의 격 조사는 ①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두 개이고, 'ㄷ'의 격 조사는 ③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두 개이다.



품사

8) ㉠ ㉡ [격 조사와 보조사의 문법적 특성] ㉠의 '부산에는'은 서술어 '가다'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 즉 필수 부사어인데 '는'이 붙지 않아도 필수 성분이 된다. ㉡의 '학교에서는'은 서술어 '공부하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은/는'이 붙는 것이 문장의 필수 성분이 되는 것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 ㉡에서 '동생은', '동생이'가 모두 주어로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은/는', '이/가'는 주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 ㉡ ㉢에서는 '은'과 '이'가 서로 교체되어 쓰일 수 있지만 ㉣에서는 '은'만 쓸 수 있고 '이'는 쓸 수 없다. 즉 '은/는'이 항상 '이/가'와 교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에서 '동생은'은 주어, ㉣에서 '수박은'은 목적어, ㉣에서 '부산에는'은 부사어, ㉤에서 '학교에서는'은 부사어, ㉤에서 '빨리는'은 부사어이므로 보조사가 다양한 문장 성분에 붙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데 반해, '이/가'가 붙은 말은 ㉣의 주어인 '동생이'만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어진 탐구 자료에서 주격 조사 '이/가'는 주어에만 붙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보조사 '는'이 ㉢, ㉤에서는 부사격 조사 뒤에 붙었고 ㉤에서는 부사 뒤에 붙었다. 즉 보조사는 체언 이외의 요소 뒤에도 결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에서 주격 조사 '이/가'가 붙은 예문은 모두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9) ㉠ ㉡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보기>의 '엄과'를 보면 앞 체언의 종성이 'ㄹ'인 경우에는 접속 조사 '과'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앞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와 관계없이 '와'가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 ㉡ '들', '니' 뒤에도 접속 조사 '와'가 결합해 있으므로, 중세 국어의 접속 조사는 체언이 나열될 때 마지막 체언에도 결합했다고 볼 수 있다. ㉢ '니왜'의 '왜'는 '와 + ㄴ'이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접속 조사는 주격 조사와 결합한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하늘과'의 '과'는 ㅎ 종성 체언 '하늘'의 'ㅎ'과 '과'가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자왓'은 '쌍+ 과 + ㅅ'으로 분석되며, '과' 앞에 오는 체언의 종성 'ㅎ'과 '과' 그리고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형태가 '왓'이다. 따라서 ㅎ 종성 체언과 관형격 조사 'ㅅ' 사이에 접속 조사가 사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 ㉠ ㉡ <보기>의 문장에 쓰인 단어 중 여러 어미와 결합하여 형태가 변할 수 있는(활용하는) 단어는 '심은', '자란다'이며,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는 '새'와 '잘'이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 ㉠ ㉡ '새'는 바로 뒤에 오는 '집'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며, 형태 변화를 하지 않으므로 B에 해당한다. '에'와 '가'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 간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단어이므로 C에 해당한다. '자란다'는 '자라고, 자라서, 자라니' 등으로 활용하는 단어이므로 A에 해당한다. ㉢ '심은'은 '심고, 심어서, 심으니' 등으로 활용하는 단어이므로 A에 해당한다.

27) ㉠ ㉡ [품사의 세부 유형 분류] 국어의 단어들은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로 분류된다. 이 중 활용을 하지 않으면서 주로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하는 품사는 '관형사'이다. 제시된 답지 중 관형사는 ㉣의 '갓은'이다. '갓은'은 활용을 하지 않으며 '노력'과 같은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한다. ㉠ ㉡ '빨리는'은 활용을 하지 않으며 다른 말을 꾸미기는 하지만 체언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왔다'와 같은 용언을 꾸민다. '빨리'의 품사는 '부사'이다. ㉢ '흠쩍'은 활용을 하지 않으며 다른 말을 꾸미기는 하지만 체언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꿇다'와 같은 용언을 꾸민다. '흠쩍'의 품사는 '부사'이다. ㉣ '좋은'은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로 이 문장에서는 체언 '곳'을 꾸미기는 하지만 품사로는 '형용사'이다. '좋고, 좋으니, 좋아서' 등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 '예쁜'은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로 이 문장에서는 체언 '자식'을 꾸미기는 하지만 품사로는 '형용사'이다. '예쁘고, 예쁘니까, 예뻐서' 등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12) ㉠ ㉡ [어미와 조사의 이해] '이제 시작해 가지고서'의 '-고서'는 '시작하다'가 전제되지 않으면 '숙제를 마치다'가 성립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기 때문에 ㉠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우리나 되니까'의 '나'는 최선의 자격 혹은 조건이 됨을 뜻하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 ㉡ '너도 구두를 신고서 산길을 걸어 봐.'는 '-고서'의 원래 뜻풀이의 예문으로, '약속 시간에 늦지 말고 빨리나 오세요.'는 '나'의 원래 뜻풀이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 '군인이 아니고서 말투가 그러지는 않겠지.'는 '-고서'의 추가된 뜻풀이의 예문으로, '형이 하는 이야기나 들어 보고 결정하자.'는 '나'의 원래 뜻풀이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 '그녀는 아들을 업고서 병원까지 달려갔다.'는 '-고서'의 원래 뜻풀이의 예문으로, '이걸 동생 장난감으로나 쓸 수 있으려나.'도 '나'의 원래 뜻풀이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 '형은 운동을 마치고서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는 '-고서'의 원래 뜻풀이의 예문으로, '여섯 시나 되니까 이제 좀 날이 선선히진다.'는 '나'의 추가된 뜻풀이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13) ㉠ ㉡ [어미와 조사의 이해] ㉠은 앞말이 관형사 구실을 하는 만큼 체언을 수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용례를 확인하면 된다. '웃는 얼굴 / 해가 뜨는 시각 / 바로 그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네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나? / 향기가 없는 꽃이라도 좋다. / 선생님이 계시는 줄도 모르고 떠들었다. / 모르겠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라.'와 같은 경우가 ㉡의 용례로 적절하다. 그러나 ㉢의 '는'은 관형사형 어미가 아닌 보조사이다.

14) ㉠ ㉡ [단어의 구조 파악] ㉠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른다.'에서 '힘들다'의 어간 '힘들-'에 어미 '-ㄴ지'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할아버님께서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에서 '괜찮으신지'는 '괜찮- + -으시-'에 어미 '-ㄴ지'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에서 '지'는 강아지가 집을 나갔을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그를 만난지도 꽤 오래되었다.'(x) →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 이 문장에서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헤어진지 10년은 되는 것 같구나.'(x) →

‘헤어진 지 10년은 되는 것 같구나.’(○: 이 문장에서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외모만으로는 그가 총각인 지 알 수가 없다.’(x) → ‘외모만으로는 그가 총각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문장에서 ‘총각인지’는 ‘총각이다’에서 ‘이다’에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뒤에 오는 판단(알 수가 없다)과 관련짓는 어미 ‘-는지’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5) ㉠ ㉡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의 ‘반환점을 둔 선수’에서 ‘둔’의 ‘-ㄴ’은 과거의 의미를 띠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ㄴ’은 동사와만 결합 가능하므로 ‘돌다’가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ㄴ의 ‘일어나다’는 ‘일어나다’의 어간 ‘일어나-’에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된 것이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은 동사에만 결합될 수 있으므로 ‘일어나다’가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ㄴ에서 ‘아름답다’는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없으므로 ‘아름답는’으로 쓰일 수 없다. 반면 ‘아름답다’는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여 ‘아름다운’으로 쓰일 수 있다. 형용사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아름답다’가 형용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ㄴ에서 ‘핀다’는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핀다’가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ㄴ에서 ‘작다’는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와 모두 결합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작다’가 형용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용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이 결합할 수 없다.

16) ㉠ ㉡ [단어의 구조 파악] ㉠은 선어말 어미를 분류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셨다’의 ‘-셨-’은 높임을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 ‘-시-’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 두 개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 ㉠ ‘어간’은 동사와 형용사에서 활용할 때 형태가 고정된 부분이므로 제시문에서 형용사 어간은 ‘거세-’, 동사 어간은 ‘불-, 가-’이다. ㉡ ㉠ ‘종결 어미’는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미이므로 평서형 종결을 나타내는 ‘-다’를 찾을 수 있다. ㉡ ㉠ ‘연결 어미’는 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미이므로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 ‘불어서’의 ‘-어서’를 찾을 수 있다. ㉡ ㉠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이다. 이 문장에서는 ‘거센’의 ‘-ㄴ’이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거세다’의 서술적 기능을 관형어의 기능으로 바꾸어서 뒤에 나오는 ‘바람’을 수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17) ㉠ ㉡ [전성 어미의 특징 이해] ㉠의 ‘자던’은 ‘자-’라는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던’이 붙은 것이다.

18) ㉠ ㉡ [단어의 분류 파악] ㄴ. ‘붓다’의 경우 앞의 단어는 ‘불입금, 이자, 껌돈 따위를 일정한 기간마다 내다.’라는 의미이고, 뒤의 단어는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라는 의미이다. 두 단어의 의미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에 들어갈 수 있다. ㄴ. ‘갈다’의 경우 앞의 단어는 ‘이미 있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 뒤의 단어는 ‘날카롭게 날을 세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다른 물건에 대고 문지르다.’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두 단어의 의미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단어의 품사는 동사이면서, 각각 ‘갈고, 갈며, 갈지’ 등으로 동일하게 규칙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B]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 ㄴ. ‘뜨다’의 경우 앞의 단어는 ‘행동 따위가 느리고 더디다.’를 의미하고, 뒤의 ‘뜨다’는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르다.’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두 단어의 의미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의 단어는 품사가 형용사인 반면, 뒤의 단어는 품사가 동사이다. ㄴ. ‘묻다’의 경우 앞의 단어는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뒤의 단어는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편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두 단어의 의미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두 단어의 품사는 모두 동사에 속하지만, 활용을 할 때 다른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즉, 앞의 ‘묻다’는 ‘묻고, 묻으며, 묻으니’로 규칙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뒤의 ‘묻다’는 ‘묻고, 묻으며, 묻으니’로 활용의 형태가 바뀐다.

19) ㉠ ㉡ [각 품사의 특징 파악] ‘도우며’는 기본형 ‘돕다’의 어간 ‘돕-’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으며’와 결합한 형태이다. 이는 어간의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우’로 변하는 현상으로 ㉠에 해당하며, 이를 ‘ㅂ’ 불규칙 활용이라 한다. ㉡ ㉠ ‘걸어서’는 기본형 ‘걷다’의 어간 ‘걷-’에 어미 ‘-어서’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어간이 ‘걷-’에서 ‘걸-’로 바뀌는 ㉠의 예이다. ㉡ ㉠ ‘지어’는 기본형 ‘짓다’의 어간 ‘짓-’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어간 ‘짓-’에서 받침 ‘ㅅ’이 탈락한 경우이므로 ㉠의 예이다. ㉡ ㉠ ‘하여’는 기본형 ‘하다’의 어간 ‘하-’에 어미 ‘-아’가 결합하여 어미가 ‘-어’로 변한 형태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 ‘파래서’는 기본형 ‘파랳다’의 어간 ‘파랳-’에 어미 ‘-아서’가 결합하여 ‘파래서’로 변한 형태이므로, 어간도 변하고 어미도 변화한 ㉠의 예이다.

20) ㉠ ㉡ [품사의 특징 파악] ‘개에게 먹이를 쥐서 짓지 않게 해라.’의 ‘쥐서’는 기본형 ‘주다’의 활용형 ‘주어서’가 바뀐 형태로 규칙 활용의 예이다. ㉡ ㉠ ‘집을 잔뜩 실어 보냈다.’의 ‘실어’는 기본형 ‘실다’의 활용형이다. 어간 ‘실-’의 ‘ㄷ’이 모음 어미 ‘-어’ 앞에서 ‘ㄷ’ 불규칙 활용의 예이다. ㉡ ㉠ ‘길에서 책을 주워 가방에 넣었다.’의 ‘주워’는 기본형 ‘줍다’의 어간 ‘줍-’의 ‘ㅂ’이 모음 어미 ‘-어’ 앞에서 ‘우’로 변하여 ‘주워’가 되는 ‘ㅂ’ 불규칙 활용의 예이다. ㉡ ㉠ ‘밥을 지어 부모님을 봉양하다.’의 ‘지어’는 기본형 ‘짓다’의 어간 ‘짓-’의 ‘ㅅ’이 모음 어미 ‘-어’ 앞에서 탈락하는 ‘ㅅ’ 불규칙 활용의 예이다. ㉡ ㉠ ‘그 사람과는 성격이 달라 같이 일하기 힘들다.’의 ‘달라’는 기본형 ‘다르다’의 어간 ‘다르-’가 모음 어미 ‘-아’ 앞에서 ‘ㄹ’ 불규칙 활용의 예이다.



품사

- 21) ㉔ ⑤ [용언의 불규칙 활용 이해] ‘치르-+-어’는 ‘치러’로 모음 ‘-’가 탈락되면서 ‘ㄹ’이 ‘-어’와 결합되어 ‘러’가 된 것이다. 용언의 어간에서 ‘-’가 탈락하는 것은 규칙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치러’는 규칙 활용이다. ‘러’ 불규칙은 모음 ‘-’가 탈락되지 않고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현상이다. ㉔ ① ‘긋-+-어’는 ‘그어’로 변화하는데 어간의 ‘ㅅ’이 탈락된 현상이 나타난다.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의 ‘ㅅ’이 탈락하는 현상은 ‘ㅅ’ 불규칙이므로 ‘그어’는 용례로 적절하다. ② ‘깨달-+-아’는 ‘깨달아’로 변화한다. 이때 어간의 받침 ‘ㄷ’이 ‘ㄹ’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의 받침 ‘ㄷ’이 ‘ㄹ’로 바뀌는 현상은 ‘ㄷ’ 불규칙이므로 ‘깨달아’는 용례로 적절하다. ③ ‘아름답-+-어’는 ‘아름다워’로 변화한다. ‘아름다워’는 어간의 받침 ‘ㅂ’이 어미 ‘-어’ 앞에서 ‘우’로 바뀐 후, ‘우’와 ‘-어’가 결합하여 ‘워’가 되어 ‘아름다워’로 적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워’는 ‘ㅂ’ 불규칙이다. ④ ‘찢르-+-어’는 ‘찢러’로 변화한다. ‘찢러’는 어간의 ‘르’에서 ‘-’가 탈락되고 ‘ㄹ’이 덧생겨서 ‘찢ㄹ-+-어’로 변화한 후 결합하여서 ‘찢러’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찢러’는 ‘르’ 불규칙이다.
- 22) ㉔ ② ‘전해 듣다’에서 ‘듣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일정한 내용을 가진 말을 전달받다’의 본용언이다. 왜냐하면 ‘듣다’는 ‘전해’의 뒤에 위치하고 있지만 ‘나는 들었다’와 같이 ‘나는’이라는 주어를 자립적으로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해 듣다’는 ‘본용언+본용언’의 구성이기 때문에 ‘전해듣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㉔ ① ‘막아 내겠다’의 ‘내겠다’는 앞의 주어를 자립적으로 서술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 용언에 해당한다. ③ ‘이겨 냈다’의 ‘내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로, 주어를 자립적으로 서술하지 못하는 보조 용언에 해당한다. ④ ‘깨뜨려 버렸다’에서 ‘버렸다’는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 아니다.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로 본용언인 ‘깨뜨려’의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⑤ ‘도와 드렸다’에서 ‘드렸다’는 자립적으로 주어를 서술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녀는 일을 드렸다.’와 같이 사용하면 ‘도와 드렸다’에서 ‘드렸다’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이로 볼 때, ‘도와드렸다’에서 ‘드렸다’는 주어를 자립적으로 서술하지 못하는 보조 용언에 해당한다.
- 23) ㉔ ⑤ [관형사와 관형사형] 3.a의 ‘이’나 3.b의 ‘저’는 지시관형사로서, 명사구 ‘흰 신발’, ‘새 책’ 전체를 꾸미는 것이지, 관형사나 체언을 단독으로 꾸미는 것은 아니다. 관형사가 관형사를 꾸미는 법은 없다. ㉔ ①1.a의 ‘다른’은 형용사 ‘다르다’가 활용한 관형사형일 뿐이다. 따라서 1.b의 관형사 ‘다른’과 품사가 다르고 그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 ② 명사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지만,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붙지 않는다. ④ 관형사와 부사는 모두 다른 말을 꾸며 준다는 면에서 수식언이다.
- 24) ㉔ ⑤ [각 품사의 특징 파악] ‘ㄹ. 이것은 아주 새 책이나 다름없다.’에서 부사 ‘아주’는 관형사 ‘새’를 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사가 관형사를 수식하는 예이다. ‘ㄹ. 그와 헤어진 지 꼭 열흘이 지났다.’에서 부사 ‘꼭’은 뒤에 오는 명사 ‘열흘’을 수식한다. 따라서 부사가 명사뿐만 아니라 관형사도 수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㉔ ① ‘무척이나’는 부사 ‘무척’에 보조사 ‘이나’가 결합한 형태이다. ② ‘매우 멀리’는 부사 ‘매우’가 이어지는 부사 ‘멀리’를 수식하고 있다. ③ 부사 ‘과연’은 뒤에 이어지는 문장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④ ‘ㄴ. 그는 매우 멀리 여행을 떠났다.’에서 부사의 순서를 바꾸어 ‘*그는 멀리 매우 여행을 떠났다.’는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저리 잘 안 먹는 아이가 키는 제법 크구나.’에서 부사의 순서를 바꾼 ‘*잘 저리 안 먹는 아이가~’ / ‘*잘 안 저리 먹는 아이가~’ / ‘*안 잘 저리 먹는 아이가~’는 자연스러운 국어 문장이 아니다.
- 25) ㉔ ③ [품사의 이해] (가) 다른 말을 수식하는 말은 수식언인 관형사와 부사이다. (나) ‘무엇이 어떠한가’에서 ‘무엇’은 체언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이고 ‘어떠한가’는 용언 중에서도 형용사를 뜻한다. (다) ‘무엇이 어떠한가’에서 ‘어떠한가’는 자동사, ‘무엇이 무엇을 어떠한가’에서의 ‘어떠한가’는 타동사에 해당하여 품사의 분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 (라)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관계언인 조사이고 조사 중에서도 격조사에 해당한다. 생략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품사 분류 기준에는 속하지 않는다. (마)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에 나타나는 말 중에서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은 명사이고,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는 말은 대명사이고,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 수사이다.
- 26) ㉔ ② [품사와 성분] 일반적인 주격조사는, 그 존경의 조사가 ‘께서’인데,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는 ‘께서’가 나타날 수 없다. 즉, ㉔의 설명처럼 명사, 대명사, 수사가 주어로 쓰일 때 결합하는 조사가 모두 보어로 쓰일 수는 없다. ㉔ ① 명사, 대명사, 수사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보격조사, 서술격 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호격조사 등 각 격조사와 결합하여 ㉔~㉔의 문장성분으로 쓰인다. ③ ‘그림 그리기가 매우 즐겁다.’, ‘비가 오기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다.’라는 문장을 보면 동사, 형용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 명사절로 안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문장을 보면 ‘오다’ 동사가 목적어로 쓰이면서 명사형 전성어미와 결합하고 그 뒤에 목적격조사가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⑤ 관형어 성립의 대표적인 것은 관형사이고, 관형격 조사, 관형사형과 관형사절에 기대어서도 관형어가 될 수 있다. 다음은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는 예이다. 가. 첫 서리가 내리면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 나. 저 아이를 유심히 보아라. 다. 종이 두 장을 사 오너라.
- 27) ㉔ ② [조사의 용법 이해] 격조사의 경우에는 생략하더라도 의미에 별 지장이 없지만, 보조적인 의미를 첨가하는 보조사의 경우에는 생략을 하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나만 학생이다’와 ‘나 학생이다’는 분명히 다

른 의미를 지닌다. ㉞ ③ 격조사는 앞말과 뒷말의 문장 성분 관계를 표시한다. '영수가 순희를 사랑했다'에서 격조사 '가' 때문에 '영수'는 문장의 주어가 된다. ④ 격조사는 앞말과 뒷말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므로 어순을 바꾸더라도 문장의 의미에는 큰 지장이 없다. ⑤ 영어는 어떤 단어가 주어로 쓰이다가 목적어로 쓰이게 되면 단어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조사가 문법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굳이 단어의 형태가 변할 필요가 없다.

28) ㉞ ⑤ [조사의 쓰임] ⑤의 '처럼'은 체언에 결합하여 모양이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㉞ ①의 '라도'는 체언에 결합하여 '썩 좋은 것은 아니나 그런대로 괜찮음'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 ②의 '야'는 체언에 결합하여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 ③의 '는'은 어미에 결합하여 '대조'나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 ④의 '만'은 부사에 결합하여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29) ㉞ ③ [조사의 이해] (가) 철수는 여의도에 한 회사에 취업했다. : '에' 대신에 '의'가 적절하다. 혹은 '여의도에 있는'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다. (나) 한 컴퓨터 회사가 관공서 직원들에 선물을 주었다. : '에' 대신에 '에게'로 고치는 건 맞지만, 자료에서 말한 것처럼 기구나 단체를 뜻하는 명사 뒤에 '에게'를 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구나 단체를 뜻하는 명사 뒤에는 '에'가 더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다) 영주는 마루에 자는 강아지를 안아 주었다. : '에' 대신에 '에서'로 고치는 것이 맞다. '나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처럼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뒤에는 '에서'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라) 그 독립투사는 혈사를 쓰려고 칼에 손가락을 베었다. : '에' 대신에 '로'를 쓰는 것이 옳다. 독립투사가 의도적으로 칼을 도구로 해서 자기 손가락을 벤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에'가 맞는 표현이 되려면 '칼에 손가락이 베었다'와 같은 피동문이 되어야 한다. (마) 그는 전주를 거쳐 남원에 자동차를 타고 떠났다. : 자료에서는 '에'도 맞는 표현이라고 했지만 '에'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목표점을 나타내는 '으로'로 고쳐야 한다.

30) ㉞ ⑤ (가) '한번'은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명사 바로 뒤에 쓰여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부사이다. (나) '돌아가세요'의 원형인 '돌아가다'는 합성어로 '본용언+보조용언'의 구성이 아니므로 항상 붙여 쓴다. '꺼져만 간다'와 같이 앞 말에 조사가 붙은 경우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다) ㉞과 ㉞의 '만'은 모두 조사이다. ㉞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㉞의 '만'은 '하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절충식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조사는 스스로도 하나의 단어가 되고, 선행하는 체언도 하나의 단어가 된다고 보아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라) ㉞의 '듯하다'는 보조 형용사로 '울'이라는 본용언과 함께 쓰였다. 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따라 '비가 울듯하다'로 붙여 쓰는 것이 가능하다. ㉞은 '들'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마) '-나바'와 '-은데' 모두 하나의 연결 어미가 되어 어간 뒤에 붙여 쓴다.

31) ㉞ ④ [중세 국어 조사의 이해] 목적격 조사의 경우에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을/을'을 사용하고, 모음으로 끝나면 '를/를'을 사용한다. 또한 앞말의 모음이 양성모음인지 음성모음인지에 따라 각각 '·'와 '-'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음조화 현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32) ㉞ ③ [중세 국어 조사의 이해] '善慧(선혜)'는 앞말이 반모음 'l(j)'로 끝났기 때문에 ∅(zero) 형태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善慧(선혜)'로 표기해야 한다.

33) ㉞ ① [중세 국어의 이해] ㉞은 현대어 풀이를 볼 때, '말할 것이니'인데 이는 세존의 일을 말할 것이라는 화자의 말을 나타낸 것이므로 여기에 '일'을 듣는 대상을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㉞ ② ㉞에서 '-시-'는 '세존'을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이다. ㉞ ③ ㉞에는 부사격 조사 '에'가, ㉞에는 부사격 조사 '에'가 사용되었다. ㉞과 ㉞의 형태가 다른 것은 ㉞의 앞에 'l'나 'l' 계열 이중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있기 때문이다. ㉞ ④ ㉞은 '소서'에서 '소서'가 되므로 현대 국어의 표기를 참조할 때, 현대 국어에서는 단모음화가 진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㉞ ⑤ ㉞의 '스'는 현대 국어의 '의'처럼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한다.